No.2017-2호

DKU-LAW

2017 Edition

NEWS LETTER

법과대학장

정 진 명

인사말

법과대학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1학년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이라는 사회를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냈을 터이고, 4학년 학생들은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2,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과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내면으로부터 돌이켜 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다."고 하여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법과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법대 특강을 비롯하여 취업 특강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도 강의시간에 학생 여러분에게 지식의 전달과 함께 인생의 조언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습관을 잘 함양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여러분이 자신을 알고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법과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동료들이 많든 뉴스레터에서 지난 시간의 파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알이 익어가는 포도송이처럼 학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승화될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학과 공부를 하면서 법과대학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법울림 기자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1학기 ”

170216 입학식

2017년 2월 16일 319호에서 전체 입학식 및 법학과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회가 있었다. 법과 대학 전임교수들의 소개에 이어 정진명 학장의 17학번들의 법과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인사말과 남기연 교수의 법과대학의 공개 특강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학생회, ROTC, 법울림 기자단, 교환학생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하며 17년도 신입생 환영회는 마무리되었다. 아직은 대학이

170313 학회 알림제

2017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학회별 알림제가 진행되었다. 13일 형사법학회의 알림제를 시작으로, 법사회학회, 민사회학회, 통일의 함성의 알림제가 4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학회는 알림제 후 뒷풀이 시간을 가져 선후배간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170315 로스쿨진학반 특강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황정현 변호사의 로스쿨 진학설명회가 있었다. 황정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변호사로서의 고충을 언급하며 강연을 풀어나갔다. 아울러 로스쿨 진학설명 이야기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함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고 이에 학생들은 로스쿨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170321 취업지원관 특강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유세진 취업 지원관의 특강이 있었다. 취업에 필요한 토익, 동아리활동,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의 요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취업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남들과 다른 'unique good point'를 부각시키기 위해 호기심, 탐구심, 도전하는 용기를 기르고 둘째, 이타심을 갖고 셋째,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함을 말했다. 마지막

170323 국가직공무원 시험설명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05학번)한 원인석 주무관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설명회가 있었다. 그는 공무원 채용제도,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설명해 주면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생 조언과 함께 특강을 마쳤다.

170328 로스쿨진학반 특강

2017년 3월 28일 법학관 319호에서 로스쿨진학반 담당자인 장철준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장철준 교수는 마음이 있다면 일찍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로스쿨 진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점과 리트, 그리고 영어성적을 언급했다. 또, 다양한 독서는 물론, 지문에 대한

170216 국회사무처 특강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정재룡 의원의 국회사무처 특강이 있었다. 그는 법률 입안 주체의 다양성을 전하며, 첫 번째로 법률안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입안 법률의 국회 심사 및 소위원회의 분리 과정을 밝혔다. 두 번째로 그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오해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국회의 과제임을 지적하며, 그러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희망하며 강연를 마무리하였다

170404 한국사회와 언

2017년 4월 4일 화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신동욱 SBS 국제부장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첫 번째로 미디어의 해석에 따른 시각의 변화를 설명했다. 팩트 수집 및 정확한 사실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그는 법조인과 언론인의 유사성을 제시했다. 정의방식의 유사함을 근거로 들며 법학전공자들의 언론계 진출을 독려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170405 BEST 민법교수 특강

2017년 4월 5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BEST 법대교수 초청 특강(민법)'을 주제로 양창수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대법관)의 특강이 있었다. 양창수 교수는 감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그의 청년시절, 민법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국대 법학과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

170411 방송언론과 법

2017년 4월 11일 법학관 319호에서 '방송언론과 법(방송언론계 취업전략)'을 주제로 김형진 KBS PD의 특강이 있었다. 김형진 PD는 공중파 프로그램 제작 후 2차적인 저작물에 관련해 고통 받는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최근 언론계의 발전방향이 '스토리(창의성) 제작'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언론계에 나왔을 때 직업선택에 있어 어떠한 이점을 가질

170412 미국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강사인 김원근 변호사는 미국의 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원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법 계통의 시스템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부터 역할까지 그 활동이 무궁무진하며, 이러한 미국의 사법제도가 사회공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persuasive speaking에 대한 연습과 영자신문 읽기를 통해 영어공부의 기반을 다질 것을 권유하며 강의를

170510 로스쿨 합격 후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로스쿨 합격 후기'를 주제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법학과 12학번 류시영 학우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류시영 학우는 로스쿨 입시 일정과 법학적성시험, 토익, 학점에 걸친 전반적인 준비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각 학교에서 주최하는 로스쿨 설명회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찾아 알아보고, 지원할 것을 권유하며 강의를 끝마쳤다.

170511 법대 체전

2017년 5월 11일 법대주최의 체전이 열렸다. 경기종목은 족구, 풋살, 발야구, 피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경기는 학회별로 4팀이 되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였으며, 경기 점수 합산 결과, 형사법학회와 통일의 함성이 동점으로 최종 공동 우승하였다. 학우들은 체전을 준비하고 경기를 함께하는 과정을 거치며 학회원들 간 결속력을 키우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170516 국제 형사재판의 최근동향과 한국의 시

2017년 5월 16일 , 법학관 319호에서 권오곤 연구소장의 특강이 있었다. 권오곤 연구소장은 국제법의 설명을 시작으로 전쟁법, 국제 인도법, 죄형법정주의와 국제 관습법의 관계, 국제재판소들, 법의 공정성, 북한, 유엔 등과 같은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으며, 마지막으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강의는 특히 국제법을 비롯해 국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을 바로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

170518 축제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법대는 모든 학회가 축제에 참가하였다. 법사회학회는 주점을 열었다. 장소는 곰상 앞 버스정류장 맞은편이었다. 민사법학회는 <민사랜드>라는 테마로 축제에 참가했다. 장소는 혜당관과 노천마당 사이에 있는 계단 근처에서 진행되었다. 민사랜드라는 테마에 걸맞게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 레모네이드를 팔았다. 형사법학회는 민사법학회 맞은편에서 다양한 게임을 준비해 축제에 참가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함성은 혜당관 앞에서 통다방을 열었다. 이곳에서 여러가지 음료를 팔고, 다

1705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견학

2017년 5월 23일, 27명의 법학과 학생들이 화성 직업 훈련 교도소 견학을 갔다. 교도소 견학은 교도소의 소개와 영상을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 신입실에서 수갑을 체험을 하고, 기결사, 직업 훈련 현장, 접견실 순서로 견학을 했다. 특이한 점은 본래 수감동은 기결사외에 미결사도 있는데, 미결사는 견학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감동을 견학한 후에는 직업 훈련 현장에서 간식을 먹고 접견실을 끝으로 견학을 마쳤다.

170530 법대 동문 특강

2017년 5월 30일 법학관 319호에서 법대 동문 특강으로 단국대 법학과 73학번이었던 원성준 변호사의 특강이 있었다. 동문은 강연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고시의 차이점을 설명한 후 꿈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목숨 걸고 하는 끈기, 투혼과 실패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70531 로스쿨 특강

2017년 5월 30일 법학입문 수업에 원성준 변호사의 동문특강이 있었다. 단국대학교 법정학과 73학번인 그는 법학도로서 가져야 할 학문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원성준 변호사는 지난 검사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이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법학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여러 조언들을 전해 주었다. 그는, 꿈이 있는 사람, 또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꼭 성공할 수 있다며,

" 편집후기 "

법울림기자단 단장 강민아

법과대학의 1학기를 법울림기자단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구국단국 자주법대 파이팅!

법울림기자단 부단장 지유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제작편집부 부장 김규빈

법울림 파이팅~❤

기획관리부 부원 강지원

한학기 동안 법울림 기자단 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부족함을 채워가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부 부원 최노아

한학기동안 재미있었습니다!

기획관리부 부원 정주원

제 대학교 첫 학기에 기자단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경험 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부 부원 조민성

지난 학기 기사를 다시 보니 다음학기에 더 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호에는 독자들에게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기획관리부 부원 윤주빈

드디어 기자단원으로서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움과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기자단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학기도 보다 알찬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편집부 부원 박지은

2017년 남은 학기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작편집부 부원 윤민경

부족한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작편집부 부원 이정원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저널이 나오기 까지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울림 기자단 저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편집부 부원 장은혜

한학기 동안 법울림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 감사했습니다ㅎㅎ 2학기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작편집부 부원 황보혜

알바를 빠질 수가 없어서 엠티를 못가 아쉬웠지만 그거 빼곤 즐거운 활동이었습니다~